

일주문



동국대 동문회장 선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홍영춘
前 SK에너지 사장과 동국대 동문회 동
문회장에 선출됐다.



청소년스스로지킴이 종합발표회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 현성 스
님은 12월 13일 제주시 남녕고등학교
강당에서 제7회 청소년스스로지킴이
종합발표회를 개최했다.



불교인권위 권의문사 위로콘서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장 진관 스님은 12월 19일 한국불교역
사문화기념관에서 권의문사 유가족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했다.



영등포복지지역예인 초청 한마당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지거 스님은
12월 23일 부두나홀에서 개관기념 연
예인 초청 축제 한마당을 개최했다.
(02)3667-0873



좋은벗풍경소리 작은음악회
'좋은벗풍경소리' 회장 성행 스님은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
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작은음악회
및 후원의밤' 행사를 병행했다.



보스턴미술관 불교문화재 반환운동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
님은 2009년 1월 7일부터 미국 보스턴
에서 보스턴미술관 소장 '은제도금 라
마탑형 사리구' 반환 운동을 벌인다.



청와대불자회 송년대회
청와대불자회 강운구 회장은 12월
29일 1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무원
장 지관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송년대
회를 개최한다.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부와 협력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이은영 원장은
12월 16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변동
운 여성부 장관을 초청, 상호협력 및 발
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65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동국예술기획 박동국 대표는 12월
23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제65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을 공연했다.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KPGA(한국프로골프) 배상문 선수는
1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에서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1호로 위촉
됐다.

“악업 참회하고 선업 짓는 삶 살기 바래”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의 서’ 펴낸 강선희 보살

“능업(能業)을 공부하던 어느
날 <티벳 사자의 서>를 문자로
표현해 놓은 것이 100자 만트라
이고, 그 확장이 능업(能業)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 인종을 계기로 본격적
인 불교공부를 하고 능업(能業) 수행
의 달인으로 인정받은 평범한 주
부가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
의 서>를 펴냈다. 기존 <티벳 사
자의 서>가 대부분 번역서인데
반해 실제 수행자의 체험을 바탕
으로 한 웰다잉을 위한 불서다.
저자 강선희 보살(46·여성불
자108인·사진)은 본인의 호스
피스(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
과 안락을 최대한 베푸는 봉사활
동) 경험을 토대로 <티벳 사자의
서>에 접근한다. 평소 많은 사람
들의 임종과정에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장례 절차를 몸소 실천하며 수 많은
49재 과정에 참여해온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의 체험들은 그냥 얻어진 것
이 아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좌
탈(坐脫: 앉아서 입적하는 것)한
모습에 자극을 받고 수행을 결심
했다. 그 후 재가수행자로 서암
스님(前 조계종 종정·1917
~2003), 무불선원장 석우 스님,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까르마빠
린포체, 미얀마의 우팬디따 샤야
도 등 국적을 초월한 제방 선지
식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위
빠사나, 주력, 간화선, 티베트불
교를 선·교의 균형을 맞춰가며
정진해 왔다. 최근에는 기업, 사
찰 등에서 불교 수행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죽은 후에는 빛을 따라 가야
하는데, 이를 모르면 환생 또는
열반에 이르지 못하고 떠도는 영

혼이 됩니다. 영가(靈歌)를 이끌
어주는 천도재나 49재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 도움을 주지 못합
니다.”
죽은 자 뿐 아니라 산 자를 위
해 책을 썼다고 말하는 그는 “이
책을 읽는 분들이 그동안 지은 악
업(惡業)을 참회해 선업(善業) 짓
는 삶을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가 스님(금강선원 원장)은
추천사에서 “죽음의 순간부터
49일까지 영가에게 해탈의 과정
을 한 계단식 쉽게 끌어올리고
있다”며 “우리 장례문화를 <티
벳 사자의 서>속에 흐르는 사상
과 연계해 이해를 심화하고, 옛
스승들이 깊은 선정 속에서 이룩
한 정신세계를 과학적으로 증명
해 놓은 점이 돋보인다”고 밝혔
다.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 통
찰과 수행 체험이 담긴 <체험으
로 읽는 티벳 사자의 서>는 우리



의 의식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
끌어준다는 설명이다.
강 보살은 “마음을 기울여 탐
독하다 보면, 죽음의 두려움 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문제들을 쉽게 풀어내 밝고 긍정
적인 대변력을 이룰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한다.
이은아 기자

“불교외호에 최선 다하겠다”

국회직원불교신도회 제18대 김창호 회장

“국회 정각회를 도와 입법지원
활동 등으로 종교화합의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12월 16일 국회 정각선원에서
열린 국회직원불교신도회 정기
총회에서 제18대 회장으로 선출
된 김창호 국회의장 후보수석

(44·사진)은 “국회 직원들의 단
합을 이끌고, 국회의원 불자모임
정각회를 도와 종교평화 예방 등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
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년동안 117명 국
회사무처 불자들의 신생활들을

이렇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하
태수 전임회장을 이어 더욱 신심
깊은 불자회가 되도록 정진하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각회 서포터기능을 강화해
국회 전체적인 맥락에서 불교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김
회장은 “조계종 등 종단들과의
관계도 보다 유기적으로 개선하



는 등 불교
외호에 최
선을 다하
겠다”고 다
짐했다.
김창호
회장은 한
나라당 부
대변인과 제17대 대통령후보 방
송특보를 거쳤으며 7월 김형오
국회의장 후보수석으로 임명됐
다.
노덕현 기자

“법보신문 기획팀 대상”

제16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제16회 불교언론문화상(대표
수발) 시상식이 12월 17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
공연장에서 병행됐다. 이날 시상
식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 포
교원장 혜총 스님, 총무부장 원
학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재민 문
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300여 명

이 참석했다.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는 법
보신문 기획취재단이, 각분야 최
우수상에는 한겨레 신문 조현 기
자의 ‘하늘이 감춘 땅’(신문), 아
리랑TV 단기출가 2부작(TV),
BBS거북한만남 900회특집(라디
오)이 수상했다. 불교언론인상은
이계진 국회의원이, 특별상은 노
희경 방송작가가 각각 수상했다.



제16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들.
암자와 토굴 등 은둔 수행처를
취재한 조현 기자는 10월 30일
원칙한 성폭 스님과의 인연을 밝
혀 눈길을 끌었다.
조현 기자는 “수많은 산속 오
지 길안내와 취재를 꺼리는 은둔

스님들에게 직접 연락해준 성폭
스님 49재가 오늘이다. 스님이
긍정적으로 항상 말한 ‘죽어도
좋고 살면 더 좋고’를 외치며 밝
게 살아가자”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노덕현 기자

동산반야회 ‘2008 동산인의 밤’ 개최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은 12월 16일 공평빌딩 까치호텔에서 2008 동산인의 밤을 개최했다. 법주인 무진장 스님, 안동일 이사장, 은해사 최주법타스님, 한화갑 전민주당 총재(0기)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아름다운동행 ‘네모의 꿈...’ 저금통 전달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은 12월 12일 여주 신복사가 운영하는 연꽃어린이집에서 제2회 ‘네모의 꿈 만들기’ 저금통 전달식을 개최했다. 어린이 98명이 3개월간 모은 55만원의 담은 저금통이 전달됐다. 이상연 기자

포교사단 충북포교사회 사무실 개소식



조계종 포교사단 충북포교사회(회장 안병옥)은 12월 15일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법주사 주지 노연 스님과 충북포교사회의 포교사 80여 명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해철 충청지사장

충남파리미터청소년협회 발대식 병행



충남파리미터청소년협회(회장 범용·미국사 주지)는 12월 13일 미국사에서 충남지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파리미터중앙회 회장 도후미(미국사 주지)·정경(수석사 포교국장) 스님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해철 충청지사장

태고종 대전교구 총무원장 취임법회



태고종 대전교구 총무원장 월해 스님(금강정사 주지) 취임법회가 12월 13일 대전 천치연 식당에서 병행됐다. 법회에는 남호 승정스님, 원법 스님, 사암주지스님, 신도회 임원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해철 충청지사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9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아간 및 통신생)

Table with 2 columns: Course Name and Content. Rows include Basic Course (3 semesters), Intermediate Course (3 semesters), Practice Class (1 year), and Special Class (1 year).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2009년 1월 1일까지 ◆개강일시: 2009년 1월 9일 오후 5시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임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天台四教義 강의 안내

강사天台學 박사 세명 스님 (현 東大교수)

천대사 천대교관사상(天台教觀思想)의 화엄교학(華嚴敎學)과 더불어 중국불교 교학사상의 동시에 선(禪)과 함께 실천수행문의 쌍벽을 이루는 선관사상(禪觀思想)이기도 하는 불교의 이론과 실천을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킨 천대교학 사상은 『법화경』을 그 중심경전으로 삼는데, 이러한 법화경사상은 5시8교(五時八敎)라고 하는 천대의 대표적인 교판(敎判)에 의해 선양되고 있는 것을 공부하고자합니다. 포교당 및 사찰주지스님은 물론 불교학자 재가자 분들은 동참하시어 중생 포교와 자기완성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개강일자: 2009년 1월 15일
강의시간: 매일 셋째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강의장소: 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장
접수기간: 2008년 12월 3일 ~ 2009년 1월 14일까지
수강료: 6개월 25만원
자격: (가) 비구, 비구니 15년이상 불교 서울전문강당 졸업자 및 신입생, 승가대학 졸업자 한함
(나) 재가자: 불교 서울강당 졸업자 및 신입생, 불교대학이나 불교대학원 졸업 한자로 재적사찰을 가지고 있는 자
구비서류: 수강신청서 1부
입금처: 농협 053-02-244604 선교경전연구회 - 최재동
문의 및 접수: 02)735-1053, 018-242-7070

불교서울전문강당 동문회 禪敎經典연구회 회장 법경